

관용표현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1판1쇄 발행 2021년 2월 10일

지 은 이 | 임지룡·김령환·김억조·김정아·리우팡
송현주·왕난난·임태성·첸이핑첸이

펴 낸 이 | 김진수

펴 낸 곳 | 한국문화사

등 록 | 제1994-9호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49, 404호(성수동1가,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3차)

전 화 | 02-464-7708

팩 스 | 02-499-0846

이 메 일 | hkm7708@hanmail.net

홈페이지 | <http://hph.co.kr>

ISBN 978-89-6817-194-9 93700

-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습니다.
- 잘못된 책은 구매처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 책값은 뒷표지에 있습니다.

제9장

동물명 관용표현의 한국어 교육 방안

김정아*

1. 들머리

이 글의 목적은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관용표현의 교육 방법을 고찰해 보는 것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외국어 교육에서 어휘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요하다. 목표어의 어휘를 알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은 텍스트와 담화를 이해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외국어 학습자들의 ‘어휘능력(lexical competence)’은 텍스트를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담화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므로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필요하다.¹ Lewis(1993/1997)는 중급과 고급 학습자의 차이

* 말라야국립대학교 아시아·유럽언어학과 객원교수, piscean00@hanmail.net
¹ 언중들의 어휘력에는 ‘양적 능력’과 ‘질적 능력’이 있다. 이중 ‘질적 능력’은 어휘소의 의미에 대한 이해(단어의 의미, 다의, 속어, 속담 등)와 어휘소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유의관계, 반의관계, 공기관계)와 관련된다. 특히 외국어 학습자들의 경우 어휘의 양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어휘소가 갖는 의미와 용법을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는 ‘질적 능력’이 수반되어야 진정한 어휘 구사가 가능하다(김광해 1993:

는 문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정신적 어휘부(mental lexicon)’에 있음을 강조했다. 학습자의 학습 정도가 높아질수록 어휘능력이 유창성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 특히 ‘관용표현’은 두 단어 이상이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갖는 표현으로 표면적 의미를 통해서는 문맥에서 실현되는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우리가 관용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상황이나 감정을 실감나게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관용표현에는 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감정이나 상황을 인식하는 공통된 방법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관용표현은 외국인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으로 인식되고 별도로 학습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² 또한 교수자들에게는 어려운 과제가 되기도 한다.³

이러한 관용표현을 학습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어휘력이 향상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관용표현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면 유창성도 향상될 수 있다. 따라서 관용표현 교육의 필요성은 이미 많은 공감을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에서는 어휘나 문화교육의 한 부분으로 관용표현을 다루고 있다. 한국어 교육을 위한 관용표현 연구는 신체어 관용표현의 교육 방안을 제안한 이영숙(1992)에서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관용표현에 대한 연구는 교재의 관용표현 분석, 학습용 관용표현 목록 선정, 관용표현 대조 등의 연구로 요약된다. 유덕자(1997), 문금현(1998)에서는 교재 분석과 더불어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관용표현 목록을 제시하였

306-314 참조).

² 오은화(2019: 90-91)의 조사에 따르면, 중급 학습자들에게 학습하기에 가장 어려운 어휘 종류는 관용표현이었고(조사 대상자 중 60%), 어휘 교재가 개발된다면 추가로 공부하고 싶은 어휘도 관용표현(조사 대상자 중 80%)으로 나타났다.

³ Gibbs(1994)는 속어 표현과 진부한 표현, 관용적 표현은 좋은 의도를 지닌 많은 영어 교사의 최대의 적이라고 했고(나이주 역 2002: 352), Sorng(1988: 281)도 관용표현은 사전에서 비체계적인 부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가르치기 상당히 어렵다고 했다.

다. 특히 문금현(1998)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관용표현 학습의 중요성과 더불어 단계별 학습 내용을 제시하여 이후 연구의 중심이 되고 있다. 황주승(2005)에서도 학습자들을 위한 목록을 제시하였고, 황미연(2006)과 김애진(2009)는 한국어와 중국어, 한국어와 일본어의 관용표현을 대조하여 중국인 학습자,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교육 방법을 제안했다.⁴

최근 한국어 교육을 위한 관용표현 연구는 목록이나 교육 방법이 더욱 구체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있다. 신체어(최권진·정혜령 2010, 조영화 2011, 배유진 2016, 정동준 2017, 김종옥 2018, 김서우 2020), 감정표현(조유진 2018, 정유남·최창원 2020, 이론 2020), 동물명(김동국·이상률 2015), 색채어(김영애 2017), 돈(김정남 2016) 등 주제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 방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교육 방법론에 집중한 연구도 있다. 서수백(2016)과 손혜진 외(2018), 송대현(2020), 김효신(2020)은 TV 드라마를 활용한 관용표현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고, 박영숙(2010)과 김애심(2017)은 관용표현의 유래담과 문화적 배경을 활용한 교육, 이현주(2013)는 신문 읽기, 박기원(2019)은 스토리텔링 기법, 서영서(2020)는 어휘 학습전략을 기반으로 한 관용표현 교수 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관용표현을 언어의 예외적인 현상으로 인정하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인지언어학의 이론인 은유와 환유, 혼성을 기반으로 관용표현을 설명하고 학습 방안을 제안한 연구도 있었다. 이지용·심지연(2010)은 실험을 통해 학습자들이 관용표현을 이해하는데 영상도식 은유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밝혔다. 영상도식 은유를 통해 관용표현의 의미를 학습한 학습자들이 그렇지 못한 학습자들보다 관용표현의 의미를 추론하는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에 대한 한국인의 개념화 방식을 설명

⁴ 언어 간 관용표현 대조 연구는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 생략하기로 한다.

함으로써 관용표현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미 있는 연구였다. 이연희(2012), 이선희(2014), 박근희(2015, 2018)에서도 인지언어학을 기반으로 관용표현의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념적 은유와 환유를 통해 관용표현의 의미를 교육하는 것으로, 관용표현과 의미를 암기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접근이었다.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에서 관용표현 교육의 필요성과 목록, 교육 방법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관용표현의 주제와 교육 방법이 주로 신체어, 감정표현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고, 문화교육의 한 방법으로 제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⁵ 이에 이 연구는 관용표현을 어휘 교육의 연장선에서 보고 어휘가 갖는 확장된 의미를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한국어 교육에 적용해 보려고 한다. 지금까지 관용표현은 문법 지식을 학습한 후 제시해야 한다고 여겼지만, 이 연구에서는 어휘가 갖는 비유적인 의미를 초급 단계에서 학습하고 확장된 형태의 관용표현을 중급, 실질적인 활용을 고급 단계에서 학습해야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것은 기존에 관용표현 학습 단계를 한정적으로 보았던 한계에서 벗어나 초급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관용표현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5 하지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항목을 정하는 것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문화라는 방대한 범위에서 어떤 내용을 선정하여 가르치는 것에는 어떤 이론이나 방법이 있다고 하기 어려워 개인 개발자나 기관에 따라 자의적, 주관적 성격을 띠 수밖에 없다(민현식 2006: 145).

2. 인지언어학과 제2언어 교육에서의 관용표현

2.1. 인지언어학에서의 관용표현

지금까지 전통적인 어휘 교육관에서는 형태와 의미 쌍을 암기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왔다. 하지만 인지언어학은 어휘 학습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인지언어학에서는 신체를 통한 체험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세계에 대한 ‘개념화(conceptualization)’를 통해 의미가 형성된다고 설명한다.⁶ 또한 언어를 둘러싼 문화적 배경도 의미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은 제2언어 교육의 이론과 방법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즉, 관용표현은 구성요소의 의미와 배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어휘의 하나라는 점에서 단순히 의미와 형태 쌍을 암기하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 또 인간의 인지적 능력은 언어적 창조성과도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어휘가 가진 기본 의미를 바탕으로 확장된 의미를 유추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은 기존의 언어와 의미의 자의적인 결합, 기계적인 암기 훈련을 중요시한 문법번역식 교수법, 청각구두식 교수법의 기본 생각과는 다른 관점이다. 외국어 교육을 위한 관용표현의 특성을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a. 관용표현의 구성 요소는 분리 가능하다.
- b. 관용표현의 의미는 동기화되어 있다.
- c. 인간의 창조적 언어 능력은 관용표현 이해에 기여한다.

6 언어에 반영된 현실의 구조는 인간의 마음과 ‘신체화(embodiment)’의 산물이며 개념들의 본질과 개념들이 조직화되는 방식은 신체화된 경험의 본질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임지룡 2018: 18).

관용표현의 첫 번째 특성은 구성요소들이 분리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관용표현의 구성요소들은 해체 가능하거나 분석 가능하고 부분의 의미는 전체의 의미에 기여한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관용표현은 의미적 개연성이 없는 단어들이 둘 이상 결합하여 고정된 의미로 사용되는 언어 현상으로 보았다. 하지만 Nunberg *et al.*(1994)은 모든 관용표현은 많은 경우 관용표현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들이 의미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보면서 관용표현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다. 관용표현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의 의미가 관용표현에 의미적으로 기여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진 ‘은유적 지식(metaphorical reference)’이 일반 담화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관용표현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Gibbs & Nayak(1989), Gibbs(1994)는 모든 관용표현이 구성요소를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관용표현은 분리 가능하며 분리 가능성은 정도의 문제라고 했다.⁷ 다음은 Gibbs(1994)에서 제시한 분석 가능한 정도의 관용표현의 예이다.

- (2) a. pop the question(여자에게 구애하다), lay down the law(명령적으로 말하다), spill the bean(비밀을 누설하다)
- b. kick the bucket(죽다), shoot the breeze(호언장담하다)
- c. let off steam(울분을 토하다)

pop과 law와 같은 단어를 통해서 전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2a)와 같은 관용표현도 있지만, 구성요소 각각의 의미로는 ‘죽다’와 ‘호언장담하다’를 유추할 수 없는 (2b)와 같은 관용표현도 있다. 하지만 영어 화자들은 대체로 (2c)와 같이 ‘steam(증기)’을 통해 ‘화(anger)’를 유추할 수

⁷ King(1999: XI)에서도 모든 관용표현이 은유적이지 않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대부분의 관용표현은 은유를 통해서 이해하고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있기 때문에 ‘let off steam(울분을 토하다)’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Gibbs(1994: 141)는 몇 가지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관용표현을 이해하는 데 특별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구성요소의 사전적 의미를 분석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관용표현의 구성요소는 우리의 경험, 개념 체계, 배경지식에 의해 해석되기 때문이다. 즉, 관용표현은 개연성이 없는 단어들이 결합해 새로운 의미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개념들의 결합이다.

두 번째 특성은 관용표현의 의미가 ‘동기화(motivation)’되어 있다는 것이다. 관용표현은 개념적 은유와 환유, 관습적인 지식에 의해서 이해할 수 있다.⁸ Kövecses & Szabó(1996: 345-351)는 대부분의 관용표현은 체계적으로 동기화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개념적 은유와 환유, 관습적 지식이 관용표현의 의미에 동기를 제공한다고 했다.

- (3) a. 그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찼다.
- b. 그녀는 깊은 두려움에 빠졌다.
- c. 나는 그를 보는 순간 미움이 솟았다.
- d. 두 사람은 서로 사랑이 넘쳐흘렀다.
- e. 소식을 들은 그녀는 슬픔에 잠겨 있었다.
- f. 그녀의 얼굴은 기쁨으로 넘쳐 흘렀다.
- g. 그 순간 내 마음이 부끄러움으로 가득했다.
- h. 이 경기는 막상막하라서 손에 땀을 쫄 정도로 긴장감이 넘친다.

(3)은 우리가 ‘화’, ‘두려움’, ‘사랑’ 등의 감정을 표현할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들이다. 이런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몸과 감정을

⁸ 언어의 형태와 의미의 ‘동기화(motivation)’에 대해서는 Radden & Panther(2004)를 참고할 수 있다. 한국어의 동기화에 대해서는 송현주(2015)에 상세하게 논의되어 있다.

하나의 그릇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히 언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인간 인지의 한 부분이며 이런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는 우리가 다양한 맥락에서 적절한 관용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또 관용표현의 의미는 세상에 대한 경험과 축적된 지식에 의해서 형성된다. 가령, ‘호랑이’는 엄격하고 무서운 동물로 인식되며 ‘호랑이 굴에 들어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나 ‘호랑이 선생님’과 같은 표현을 통해 호랑이의 비유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세상에 대한 지식은 언어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교화되어 나타난다. 프랑스어에서 두려움과 무서움의 동물은 ‘늑대’로 나타나고,⁹ 태국어에서 ‘호랑이’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이기는 하지만, 많은 동물을 지배하는 습성으로 인해 ‘바람둥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렇듯 관용표현은 인간의 보편적인 인지능력에 의해 형성되고 또 문화에 따라 특수성을 가지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관용표현은 인간의 창조적인 능력에 의해 형성되고 전승된다. 인지언어학에서는 인간이 가진 언어에 대한 창조적 능력에 주목한다. 우리는 단어가 가진 기본 의미를 바탕으로 의미를 확장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는 인간이 가진 창조적 능력에 의해서다. 또 우리가 관용표현을 이용해 익숙하지 않은 상황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바로 창조적인 능력 때문이다. Low(1988)는 은유가 L2 언어학습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학습자들의 ‘은유적 능력’을 통해 사회적으로 민감한 은유나 문자적·은유적 표현을 구분할 수 있다고 했다. Skoufaki(2008)

⁹ 강성영(2004: 156)에 따르면 프랑스 속담에서 많은 빈도로 출현하는 ‘늑대’는 프랑스의 신화나 전설에서 [죽음], [잔인함], [위험], [잔인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주 나타난다. 사람과 물리적으로 가깝지 않은 야생동물인 늑대가 자주 출현하는 것은 프랑스의 전설과 신화에서의 의미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 속담에서도 기축이 아닌 호랑이가 높은 빈도로 출현하는 것은 전설과 민담에서 호랑이가 가진 상징적인 의미(인격화, 효, 의리, 두려움 등)와 무관하지 않다.

는 실험을 통해서 의미 유추를 통한 관용표현 교육이 일반적인 구조를 교육할 때보다 훨씬 효율적임을 확인했고 Beréndi, Csábi & Kövesces(2008)는 ‘화(anger)’ 관용표현을 개념적 은유를 제시한 집단과 제시하지 않은 집단을 비교하여 개념적 은유를 제시하는 것이 어휘 교육에 유용하다는 것을 밝혔다. Mendoza(2008)에서는 문법요소도 은유를 이용해 설명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입증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에서 인간이 가진 언어 이해 능력은 유연하고 창조적이며, 특히 다양한 동기화 요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관용표현을 학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2. 제2언어 교육에서의 관용표현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관용표현은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축된 언어적 결과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간의 경험은 세상을 개념화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고유의 문화를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 등이 있다. 어떤 방식이든 모두 인간이 가진 가치관과 관용표현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런 생각의 방식을 통해서 관용표현을 설명하고 학습한다면 관용표현은 어렵고 설명하기 힘든 교육 내용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어 교육에서 효율적으로 관용표현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학습 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모든 교육 내용은 교육 대상과 단계, 상황을 고려해야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특히 관용표현의 경우, 목표어인 한국어에 대한 배경이 있는 중급 이상의 단계에서 학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¹⁰ 하지만 관용표현은 두 단

¹⁰ 한국어 교재를 분석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중급 이상의 단계에서 관용표현이 제시되어 있다고 분석했는데, 그 이유는 한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이 갖추어지고

어 이상이 결합한 표현이므로 단어가 갖는 비유적인 의미부터 학습하는 것이 옳다. 가령, ‘호랑이’가 가진 ‘무서움과 엄격함’이라는 비유적인 의미를 초급 단계에서 학습한 후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달았다’와 같은 표현을 학습한다면 교육의 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해 어휘와 문화교육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어 교재에서 관용표현은 새로운 어휘에 제시되거나, 문화교육을 위한 단원에서만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어 화자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다양한 매체에서 관용표현을 접하게 된다. Boers & Stengers(2008: 307)는 학습자들은 비유적인 관용표현이 있는 담화에 노출되는데, 이를 위해서 목표어의 일상적인 담화에서 사용되는 관용표현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관용표현을 표현 언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¹¹ 한국어 학습자들이 관용표현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담화 영역에 따른 관용표현의 분석이 필요하다. 또 통사적 제약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관용표현은 문법 항목이나 어휘와는 다른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관용표현은 그 자체로 사회·문화적인 요소를 함축하고 있는 언어 표현이다.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의 관용표현은 모국어와 공통적인 면과 이질적인 면이 공존하는 학습 내용이 될 것이다. Kövecses(2000)는 감정에 대한 표현이 문화적으로 보편성을 가지면서도 변이를 가지기도 한다고 했다. 이것은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관용표현을 교육할 때, 보편성과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특히 한국어에서 특수성을 보이는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문화적 배경을 배우기 시작하는 시점이 중급 단계이기 때문이다.

¹¹ 대체로 관용표현은 구어적 성격이 강하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구어적 성격이 강한 관용표현과 문어적 성격이 강한 관용표현을 나눌 수 있다(문금현 2000: 51).

요컨대 관용표현은 하나의 의미를 갖는 어휘소이지만, 그 속에는 개념적, 문화적 특수성이 내재해 있다. 이런 관용표현의 특성을 인지하고 한국어 교육에서 관용표현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3. 인지언어학에 기반한 관용표현 교육의 실제

여기에서는 동물명이 포함된 관용표현을 분석하여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 방법을 제안해 보려고 한다. 동물명은 초급 단계에서 제시되는 어휘로 학습자들이 특별한 어려움 없이 학습할 수 있는 친숙한 어휘이다.¹² Keil(1979)은 아이들이 ‘성격 특성’과 연상되는 의미장보다 ‘동물’과 연상되는 의미장에 대한 지식을 더 일찍 습득한다고 했다. 즉, 동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임지룡·김동환 역 2020: 689). 이런 동물어휘는 많은 언어에서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관련된 많은 관용표현이 통용되고 있다. 한국어에서도 동물명이 포함된 관용표현은 상당히 많으며 자주 사용된다.¹³ 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⁴

- (4) a. ‘호랑이 감독’ 서장훈의 단호함. (오마이뉴스 2020. 01. 09.)
- b. 전현무는 “왼쪽은 정말 돼지 같다”며 자폭,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매일 경제 2020. 05. 28.)
- c. 차이점이라면 화려한 무늬의 구두 수집가인 메이와 ‘촌답’이란 별명

¹²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과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이하 『국제 통용』)에서 개, 호랑이, 소, 닭, 쥐를 포함한 동물명은 초급(1-2급)에서 제시된다.

¹³ 인간, 동물, 사물이 각각의 대상을 의미하는 표현을 분석한 결과, 동물을 통해서 인간과 사물을 의미하는 표현이 가장 많다(김한샘 2011: 47-50).

¹⁴ 이 글에서 제시된 예문은 『우리말샘』, 『표준국어대사전』의 용례를 사용한 것이며, 일부 용례는 인터넷 뉴스에서 검색한 기사의 일부임을 미리 밝힌다.

을 가졌던 메르켈의 패션센스 정도다. (경향신문 2016. 07. 14.)

d. 풀플 뭉친 시장 상인들에게 절도범은 ‘고양이 앞에 쥐’였다. (TV조선 2018. 03. 21.)

(4a), (4b)의 예에서와 같이 동물은 동물명 자체로도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4c)와 같이 합성어를 통해서 비유적인 의미를 획득하는 경우도 있으며, (4d)와 같이 구 단위 이상에서 비유적인 의미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동물명 관용표현은 단어가 갖는 비유적인 의미에서부터 구 단위 이상(문장)에서 실현되는 비유적인 의미를 단계적으로 교육에 적용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기본 의미와는 구분되는 확장 의미를 파악하고, 관용표현에서 실현되는 의미를 분석하여 교육에 적용해 볼 것이다.

3.1. 동물명 관용표현의 의미 양상

관용표현은 연구에 따라 관용어, 관용구, 관용표현, 속어 등의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개념 정의와 범위가 조금씩 다르다. 이 연구에서는 관용표현의 의미적인 관습성에 초점을 두고 합성어, 구, 문장 층위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¹⁵ 우선 동물명이 포함된 한국어 관용표현에서 자주 등장하는 동물들은 개, 호랑이, 소, 쥐, 닭, 고양이, 말, 등이 있다.¹⁶

15 한국어 관용표현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서는 민현식(2003)과 문금현(1999)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형태, 기능, 의미 등에 따라서 넓은 개념의 관용표현과 좁은 개념의 관용표현으로 구분하였으며, 특히 민현식(2003)은 인사말, 유행어, 수수께끼 등도 넓은 범위에서 관용표현으로 보고 있다. 문금현(1999)에서는 관용표현의 통시적 변화와 쓰임, 구어와 문어적 특징들도 설명하고 있다.

16 김정아(2015)는 <표준국어대사전>과 <21세기세종전자사전>의 관용표현 목록 중에서 동물명이 포함된 관용표현을 찾아 분석하였다. 출현 빈도를 기준으로 살펴보

주로 인간과 함께 생활하는 가축이 높은 빈도로 출현한다. 그리고 동물명 관용표현에서 동물은 모습, 행동, 관계를 통해서 개념화된다. 예컨대, 소의 큰 눈을 통해 순수함을 표현하고(모습), 개의 냄새를 잘 구분해 내는 능력을 통해 후각이 민감한 사람을 표현하고(행동), 호랑이는 피해야 하는 두려운 대상(관계)으로 인식하고 있고 관용표현에서도 이런 의미가 드러난다. 이것은 인간이 경험을 통해 지각한 동물의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번 장에서는 관용표현에서 가장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개(강아지)’, ‘호랑이’, ‘소(송아지)’, ‘쥐’, ‘닭(병아리)’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Lakoff & Turner(1989: 167)에서 설명한 ‘존재의 대연쇄 은유(Great Chain of being metaphor)’에 의하면 인간은 고등한 존재이며 동물은 인간에 비해 더 하위에 있고 식물은 동물의 하위에 있다. 인간은 동물과 식물을 통해 이해할 수 있고 동물과 식물도 인간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눈꼬리’나 ‘입꼬리’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동물의 신체 부위를 통해 이해하고 있고, ‘암술머리’, ‘수술머리’, ‘냉쿨손’ 등은 식물의 부분을 사람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런 일상적인 표현 속에 녹아있는 동물명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관용표현 속에서 동물은 사람의 ‘행동’이나 ‘인격’을 나타낸다. 주로 사람의 행동의 특징적인 부분을 동물의 행동이나 모습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다음은 [사람의 행동은 동물] 은유의 예이다.

- (5) a. 그렇게 황소걸음으로 걷다간 오늘 해 안에 저 산을 넘을 수 있겠나?
- b. 옆방 학생은 저녁을 소같이 먹고도 밤이 깊어지면 먹을 것을 찾느라 부엌 근처를 기웃거린다.

.....
면 개(강아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호랑이(범), 소(송아지), 쥐, 닭(병아리), 물고기, 고양이 순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조사 방법과 출현 빈도는 김정아(2015)를 참고하였다.

- c. 개 발에 땀 나도록 일하여 목표를 이루었다.
- d. 잘 모르면 개소리 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 e. 소귀에 경 읽기...설 연휴 닷새간 음주운전 1300건 적발. (뉴시스 2019. 02. 07.)
- f. 그 아이는 엄마에게 쪼르르 달려가더니 닭 발 그리듯 그린 영성화 그림을 자랑스럽게 펼쳐 보였다.

(5)의 예는 동물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고 있다. (5a) 황소가 천천히 걷고 있는 행동을 통해 사람의 걸음 속도를 나타내고 있고, (5b)는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의 행동을 소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5c)는 원래 땀이 나지 않는 개가 땀이 날 정도로 열심히 움직인다는 것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5d)는 사람의 언행을 지적하는 표현으로 ‘개소리’는 조리 없고 당치 않은 말을 가리킨다. 개의 의미 없는 짖음과 아무렇게나 말하는 사람의 행동에서 유사함을 찾을 수 있다. (5e)은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가리킨다. (5f)는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솜씨가 매우 서툴고 어색한 행동을 의미한다. (5)에서와 같이 우리는 동물의 행동이나 특성을 알고, 이를 통해서 사람의 행동을 강조하여 표현할 수 있다.

동물을 통해서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기도 한다. 먼저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사람의 인격은 동물]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6) a. 그 할아버지는 **인왕산 호랑이**로 소문이 나 아이들이 그 앞에서는 그야말로 얌전하게 행동한다.
- b. ‘**호랑이 감독**’ 서장훈의 단호함. (오마이뉴스 2020. 01. 09.)
- c. 이것은 필시 너희 사또의 생각이 아니라 너 같은 **쥐새끼**들의 간계이리라.
- d. 그는 성질이 **개차반**이어서 모두 가까이하기를 꺼린다.

(6)은 사람의 인격을 동물을 통해 표현하는 예이다. (6a), (6b)의 ‘호랑이’는 무섭고 엄격한 사람을 의미한다. (6a) ‘인왕산 호랑이’는 몹시 무서운 사람을 나타내고, (6b)의 ‘호랑이 감독’은 엄격하게 지도하는 감독을 나타낸다. (6c)의 ‘쥐새끼’는 아주 교활하고 약삭빠른 사람을, (6d)의 ‘개차반’은 언행이 몹시 나쁜 사람을 나타낸다. 주로 동물을 통해 나타내는 사람의 인격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이것은 동물이 인간보다 하등한 존재라는 인식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5)의 예에서도 긍정적인 행동보다는 부정적인 행동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물은 사람의 외모를 나타내는 표현에서도 등장한다. 다음은 [사람의 외모는 동물]의 예이다.

- (7) a. 두 사람 모두 맑고 큰 눈을 가진 대표적인 **강아지상** 연예인으로 꼽힌다.
- b. 흔히 **호랑이상**은 진취적이고 호전적인 기질이 강해, 남성의 경우 대통령이나 정재계 인사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관상으로 알려져 있다.
- c. 대부분의 사람들은 ‘**닭살**’을 가볍게 생각하지만 닭살은 모공 내 각질이 쌓여 피부가 오돌토돌해진 ‘**모공각화증**’이란 피부질환이다. (경향신문 2013. 07. 02.)
- d. 차이점이라면 화려한 무늬의 구두 수집가인 메이와 ‘**촌닭**’이란 별명을 가졌던 메르켈의 패션센스 정도다. (경향신문 2016. 07. 14.)

(7)은 사람의 외모를 동물로 표현한 예이다. (7a), (7b)의 ‘강아지상’과 ‘호랑이상’은 사람의 얼굴 생김이 동물과 닮은 경우를 말하는데, ‘강아지상’의 경우 눈이 크고 귀엽게 생긴 모습을 말하고 ‘호랑이상’은 광대가 불거진 강한 인상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각각의 동물이 가진 특징적인 모습을 사람의 얼굴 생김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외에도 얼굴이 긴 사람을

놀림조로 ‘말상’이라고 하기도 한다. 또 ‘돼지’는 몸이 뚱뚱한 사람을 나타내며, ‘새가슴’은 복장뼈가 나온 사람의 가슴을 말하는데, 이것은 새의 가슴과 외형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이다. (7c)의 ‘닭살’은 사람의 피부가 오돌도돌한 상태를 말하는데, 털이 빠진 닭의 피부와 유사한 상태를 말한다. (7d)의 ‘촌닭’은 세련되지 못하고 촌스러운 사람을 나타내는데, 닭이 갖는 특유의 외모나 행동을 통해서 세련되지 못하고 어설픈 사람의 외모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동물의 외형적 특징을 통해서 사람의 외모를 나타내는 것은 대상의 특징적인 면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물건의 가치는 동물]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는 물건의 가치를 동물을 통해서 나타내기도 한다. 사람에게 유익한 동물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유해한 동물은 가치가 없는 물건으로 표현한다. 특히 한국어에서 ‘소’는 가치 있는 동물로 평가된다.

- (8) a.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 고칩시다. (한겨레신문 2020. 08. 08.)
- b.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기 전에 싹 자른다. (세계일보 2017. 03. 01.)

(8)에서 ‘소’는 가치 있는 물건 혹은 재산을 나타낸다. (8a)에서 ‘소’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물건이므로 미리 잘 보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8b)에서 ‘소’는 ‘바늘’에 비해 가치 있고 큰 물건을 가리킨다. 한국에서 ‘소’는 다른 동물에 비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동물로 여겨진다. 이것은 농경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소는 농사를 지을 때 노동을 대신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동물로 다른 동물보다도 가치 있다고 여겨진다(김정아 2015: 168). 하지만 이외의 동물들은 가치가 없는 대상이나 물건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 예를 살펴보자.

- (9) a. 쥐꼬리만 한 수입,
- b. 고마울 게 쥐뿔이나 뭐, 있어?
- c. 어디서 개 발싸개 같은 것을 주워 왔느냐.
- d. “국회선진화법은 개 발의 편자”...누워 침 뱉는 새누리당. (한겨레신문 2013. 11. 13.)
- e. 이 개콧구멍 만한 집구석에서 살라꼬 니가 서울까지 기어올라 온가? (오마이뉴스 2013. 07. 02.)
- f. 비가 병아리 눈물만큼 짙짙 온다.

(9)의 예는 모두 가치가 낮은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9a), (9b)에서 ‘쥐’는 대상의 작고 불품없는 가치를 나타낸다. 특히 (9b)의 쥐뿔은 실제로 없는 신체 부위이지만 쥐의 작은 몸에 돌아난 아주 작은 뿔을 연상할 수 있다. 결국 아주 작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¹⁷ (9c)-(9e)의 ‘개’도 부정적 기준의 가치를 말한다. (9c)의 ‘개발싸개’는 개의 발을 싸는 가치 없는 물건으로 부정적 가치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9d)에서도 ‘개’는 편자와는 어울리지 않는 동물로, 개발의 편자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가치를 다 하지 못하는 물건을 의미한다. (9e)의 ‘개콧구멍’은 작고 보잘것없는 대상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9f)의 병아리 눈물은 ‘가치’의 판단보다는 물리적인 양이 적음을 강조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병아리는 작은 동물이고 그중에서도 눈물은 매우 작은 양을 나타낸다. 이렇게 ‘동물’은 사물이나 사람의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로 기능한다.

동물은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사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가령, 호랑이는 극복하기 힘든 상황을 나타내고 ‘닭을 쫓던 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낸다. 이렇게 동물이 상황을 나타내는 [사태나 상황은 동물]의 예를

17 ‘쥐뿔’은 주로 사람이 갖추어야 할 재산이나 능력 등이 충족되지 않은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쥐뿔도 모른다’나 ‘쥐뿔도 없다’, ‘쥐뿔이나 있어야지’ 등으로 사용되며, 이때 ‘쥐뿔’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것을 말한다.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0) a. 영화 ‘캡틴 아메리카’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강아지’. (노컷뉴스 2016. 05. 11.)
- b.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지만, 그냥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더 비극적으로 고통스러울 뿐이다. (영남일보 2018. 06. 13.)
- c. 충북지역교육경쟁력 강화사업 ‘소 닭 보듯’ 신청 학교 ‘0’... 결국 ‘무산’ (충청일보 2020. 05. 12.)
- d. 카드사 혜택 사라진 긴급재난지원금... ‘닭 쫓던 개’ 된 고객. (한국경제 2020. 05. 11.)
- e. 탄핵 굴레 벗은 트럼프, 곧바로 ‘피의 보복’... 핵심 증인 속속 축출. (KBS뉴스 2020. 02. 08.)
- f. 개발새발 약필이라면 ‘하루 10분 교정 프로젝트’. (국방일보 2019. 07. 24.)

(10)은 동물을 통해서 사람이 처한 상황을 나타낸 표현들이다. (10a), (10b)에서 호랑이는 두려고 무서운 상황으로 해석되지만 극복해야 할 상황이기도 하다. (10a)에서는 두려운 일이 되지만, (10b)에서는 사람의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10c)는 기관의 정책에 무관심을 보이는 학교를 ‘소 닭 보듯’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는 상황을 설명한다. (10d)의 ‘닭 쫓던 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낸다. 개가 닭을 쫓아갔지만 지붕 위로 간 닭은 더 이상 쫓아가기 힘들다. 즉 애써 하던 일이 실패로 돌아간 상황을 의미한다. (10e)의 ‘굴레’는 말이나 소를 부리기 위하여 묶은 줄로 ‘굴레 벗은 사람’은 자유로운 상황에 놓인 사람을 의미한다.¹⁸ (10f) ‘개발새발’은 ‘개와 새

¹⁸ ‘고삐 풀린 송아지/망아지’에서 ‘고삐’도 ‘굴레’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도구이지만, ‘고삐 풀린 송아지/망아지’는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사태를 의미한다.

의 발’이라는 의미로 아무렇게나 써 놓은 글씨의 모양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동물은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한다. 동물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신뢰와 배신과 같은 감정이 배경이 되기도 하고, 동물들 간의 관계에서 포착할 수 있는 행동이 표현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 [사람의 마음은 동물]에 대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11) a. 푹푹 뭉친 시장 상인들에게 절도범은 ‘고양이 앞에 쥐’였다. (TV조선 2018. 03. 21.)
- b. 내 밥 먹던 개가 발뒤축을 문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깨끗이 씻어낼 때가 됐다. (중도일보 2018. 03. 28.)
- c. 이 작자도 원체 황소고집이라 도무지 말이 먹혀들지 않을 겁니다.

(11)은 사람의 마음을 동물로 표현한 예이다. (11a)에서 쥐는 무서운 사람 앞에서 꿈쩍할 수 없는 두려운 마음을 의미한다. (11b)의 개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나타내고 (11c)의 황소는 우직하고 고집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동물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인간과 동물이 함께 생활하면서 축적한 지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사람은 동물을 관찰하고, 경험하면서 얻은 다양한 지식을 통해서 사람의 모습, 행동, 마음을 동물로 표현한다. 또한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사태를 동물의 속성을 빌려 표현하기도 한다. 이것은 인간이 인간 이외의 동물이나 사물을 인식하고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언어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3.2. 한국어 교육을 위한 동물명 관용표현의 교육 방법

여기에서는 초급, 중급, 고급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동물명 관용표현의 실제 교육 방법을 제안하려고 한다. 관용표현의 교육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자의 학습 단계이다. 한국어 교재에서 관용표현은 대부분 중급에서 본격적으로 제시된다(한송화 외 2015, 김현진 2015, 공하림·손혜진 2020). 그 이유는 단계별로 교재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와 무관하지 않다. 기초 문법 위주로 구성된 초급 단계의 교재에서는 관용표현을 학습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시 빈도가 낮고, 고급 단계에서는 구어보다는 문어 자료를 중심으로 역사, 문화, 문학작품, 시사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관용표현의 제시 빈도가 낮다(문금현 1998: 215-216). 하지만 관용표현의 범위를 합성어, 구, 문장 층위로 설정한다면 초급 단계에서 고급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용표현을 교수·학습할 수 있다(김정아·티미 왓 앙쿨 2020: 22). 관용표현의 범위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학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초급: 동물명의 기본 의미와 확장 의미 학습

초급에서 동물명의 원형적인 의미와 확장된 의미를 지도할 수 있다. 특히 초급 단계에서는 어휘로 제시되는 동물명을 설명할 때, 확장된 의미를 함께 제시하고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된다. 가령, ‘소’의 원형 의미는 ‘숫과의 포유류로 흰색이나 검은색, 갈색 털을 가진 동물’이다. 하지만 ‘소’는 ‘소고기’나 ‘소불고기’와 같이 음식의 재료를 나타내기도 한다.¹⁹ 또 소는 부지런하고 고집이 있는 사람, 행동이 느린 사람을 나타내

¹⁹ 한국어에서는 동물로서의 ‘소’나 ‘돼지’와 식재료로서의 ‘소’, ‘돼지’를 형태적으로 구분하지 않지만, 영어에서는 cow와 beef, pig와 pork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기도 한다. 이런 의미들은 단어 단위에서 실현되기도 하고 구나 문장 단위에서 실현되기도 하는데, 초급 학습자들에게는 문법 지식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어 층위의 동물명을 제시하고 비유적인 의미를 교수·학습 내용으로 제안한다.

수업 주제: 동물 어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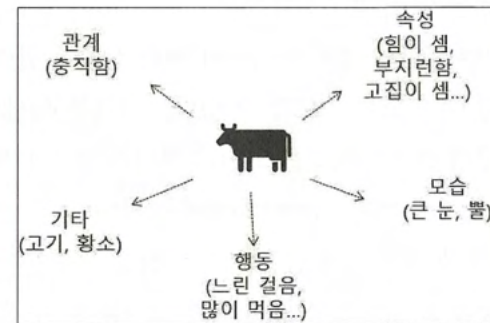
[어휘 설명 전 활동]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동물을 이야기해 본다.

한국어에서 본 동물과 자국의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다.

[어휘 설명]

‘소’에 대한 확장 의미를 설명하고 사용하는 어휘를 알려준다.



[어휘 설명 후 활동]

모국어에서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는 어휘를 이야기한다.

한국어에서 ‘소’를 통해 연상할 수 있는 의미를 설명하고 관련된 합성어(소고기, 소/황소, 황소 고집/눈/걸음/힘)를 제시한다. 특히 한국어에서 ‘소’ 합성어를 ‘황소’를 통해 ‘황소 눈’, ‘황소 걸음’, ‘황소 고집’ 등으로 사용됨을 알려준다.

사람을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외에도 돼지, 고양이, 개는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어휘 표현이 많으므로 제시할 필요가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전달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학습자의 모국어를 고려하여 확장의미를 전달해야 한다.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중급: 사람과 상황에 대한 관용표현

보통 중급 단계 학습자들이 어휘 학습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는데 중급에서부터 학습해야 하는 어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중급 학습자들은 한꺼번에 한국어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등에 노출되며, 부사, 관용표현, 추상적인 어휘 등을 본격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중급 학습자들의 경우 다양한 배경을 쌓을 수 있는 단계에 있는 동시에 학습 부담량이 많은 어려움을 함께 느끼기도 한다. 따라서 초급과 고급으로 학습할 어휘를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급 단계에서는 사람의 성격과 사람이 처한 상황과 관련된 관용표현을 배우고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국제통용』에서 중급에 해당하는 3급과 4급의 말하기 목표를 보면 주변의 인물이나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 있고, 쓰기에서는 사회적, 추상적 주제의 설명문, 논설문, 감상문을 쓸 수 있다. 따라서 중급 단계 학습자들은 주변의 인물을 파악하여 성격과 행동을 묘사하고, 상황에 대한 묘사를 할 수 있는 관용표현을 학습하는 것을 제안한다.

수업 주제: 사람의 성격과 행동을 묘사하는 말하기

[말하기 전 활동]

사람의 성격과 행동을 나타내는 형용사에 대해서 설명한다.

착하다, 친절하다, 명청하다, 행동이 느리다, 어리석다, 촌스럽다, 똑똑하다, 부지런하다, 엄격하다...

[말하기]

성격과 어울리는 동물을 [동물] 같이 OO-/은 사람'의 형태로 이야기해 본다. 학생들의 모국어에서 통용되는 의미도 들어보면서 한국어에서 특징적인 동물의 성격을 설명한다.

[] 같이 똑똑한 사람	[] 같이 나쁜 사람
[] 같이 명청한 사람	[] 같이 부지런한 사람
[] 같이 미련한 사람	[] 같이 엄격한 사람
[] 같이 어리석은 사람	[] 같이 느린 사람
[] 같이 촌스러운 사람	[] 같이 빠른 사람

[말하기 후 활동]

성격과 관련된 관용표현을 이야기한다.

모국어의 동물 의미와 한국어의 동물 의미가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중급 단계에서는 초급 단계에 비해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을 표현하는 어휘가 더 다양해지는데, 이때 동물명의 비유적 의미와 관용표현을 함께 사용한다면 더 자연스럽게 유창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수업은 한국어에서만 보이는 동물의 비유적 의미를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학습자들로 구성된 교실에서 각국의 모국어와 비교해 보는 수업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황'에 대한 관용표현도 제시할 수 있다.

③ 고급: 사회 문화적 배경이 있는 관용표현

고급 단계 학습자들은 충분한 문법적 지식과 어휘 지식을 가지고 있다.

고급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고급 단계 학습자들은 그 간의 학습을 통해 한국어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지만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관용표현은 복합적인 구성과 비유적인 의미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활용이 더욱 어렵다. 그래서 관용표현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배경이 되는 문화를 파악하고 있어도 문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박동호·박지현 2012: 87). 관용표현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Hymes(1972)에 의하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지식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언어 지식(knowledge of language)’이고, 두 번째는 ‘언어 지식을 언제 적절히 사용하느냐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when to use it appropriately)’이다(Hyland 2004/이수미·이소연 역 2019: 23). 관용표현을 학습한 한국어 학습자들은 관용표현이 어떤 장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야 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고급 학습자들이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장르인 ‘신문’에서 관용표현이 사용되는 패턴을 분석하고 적용해보면서 Hymes가 제기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특히 기존에 이해 차원에 그쳤던 관용표현을 표현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²⁰

²⁰ 최은규(2004: 210-215)는 신문을 한국어 수업에 도입하여 활용하는 것은 언어교육학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고 했다.

- ① 자연스러운(natural) 교육이 가능하다.
- ②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 ③ 풍부한 정보를 담은 실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④ 학습자의 흥미에 기초한 내적인 동기 유발에 용이하다.
- ⑤ 읽기 전략을 연습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다.
- ⑥ 통합적인 언어 교육이 가능하다.
- ⑦ 주제 중심적 어휘 학습에 효과적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신문과 자국의 최근 신문 기사에 나타난 관용표현을 비교하고 설명하면서 관용표현의 의미와 사용 양상을 지도해야 한다. 또 문화를 대조하여 이해하고 신문이라는 장르에 맞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최근 자국의 신문에서 정치, 경제 영역에 나타난 동물명이 포함된 제목을 찾아보고 기사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한국에서 화제가 되는 신문 기사의 제목을 관용표현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²¹

수업 주제: 신문 기사를 읽고 제목 쓰기

[읽기 전 활동]

1. 여러분 나라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2. 여러분 나라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읽기]

_____ , 설 연휴 음주운전 증가

일명 ‘윤창호법’ 시행 후 첫 명절인 이번 설 연휴 음주운전 적발된 인원이 지난해 설 연휴 기간보다 오히려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320건이었다. 지난해 2월 설 연휴 적발 건수(1,172건)보다 약 150건가량 많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이 올해 초부터 적용됐다. 이 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여줬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다. 여기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 처벌하고(현행 3회),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변경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올해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이같이 음주운전법을 강화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적발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²¹ https://newsis.com/view/?id=NISX20190207_0000551313&cID=10201&pID=10-200의 내용을 부분 수정한 자료.

[읽기 후 활동]

1. 기사에 어울리는 제목을 말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소귀에 경 읽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2. 자국에서 최근 화제가 된 기사를 소개하고 관련된 관용표현을 말해본다.
3. 기사 내용과 어울리는 관용표현을 제시하고 제목의 형태로 만들어 본다.
4. 기사 내용 중에 필요한 관용표현을 제시하고 한국어 문법에 맞게 글 속에 삽입해 본다.

고급 단계 학습자들에게는 관용표현이 단순히 이해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반드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며, 쓰기, 말하기 수업에서 충분히 다루어야 한다. 또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접하는 담화를 분석하여 적절한 관용표현을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마무리

지금까지 외국어 교육에서 논의된 관용표현을 살펴보고 한국어 교육에 적용해 보았다. 특히 형태와 의미의 기계적 암기를 중요하게 여겨왔던 전통적인 언어교육관에서 벗어나 관용표현을 신체화와 개념화의 산물로 보고 이해와 활용에 초점을 둔 교육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어휘는 외국어 교육에서 기초적인 교육 내용이 됨과 동시에 유창함의 증거가 되기도 하므로 중요하다. 특히 관용표현은 많은 학습자와 교사들에게 교육 내용이므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관용표현은 일반적인 어휘와는 다른 예외적인 언어 현상이 아니다. 인지언어학에서 관용표현은 개념적 은유와 환유, 배경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다. 인간의 언어 능력은 창조적이며 유연하다. 따라서 관용표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동기화를 통해 관용표현을 설명하고 학습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동물명 관용표현에서 동물의 비유적인 의미는 많은 언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동물의 비유적인 의미부터 초급 단계에서 학습하게 되면 중급과 고급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관용표현 교육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초급에서는 동물명이 갖는 기본 의미와 확장의미를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초급에서는 기본 의미와 확장된 의미를 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급 단계에서는 활용 가능한 맥락 속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모국어의 의미와 대조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지도한다. 고급에서는 학습자들이 실제로 접할 수 있는 장르를 제시하고 특히 관용표현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두고 지도해야 한다.

요컨대 관용표현은 그 자체로 문화와 사회를 함축하고 있는 언어적 결과물이다. 이런 관용표현을 단순히 어휘의 한 부분으로 암기해야 하는 내용이나 문화교육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아쉬움이 많다. 한국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미 범주와 이것을 개념화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관용표현 항목을 선정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동물’은 모든 언어권 학습자들에게 익숙한 어휘이므로 자연스럽게 제시할 수 있고 내용을 확장할 수 있다. 앞으로 더 체계적인 개념화 방식을 관용표현에 적용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성영. 2004.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동물 속담에 있어서 은유 추론 관계 비교 연구”. 『프랑스어문교육』 18: 149-169.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 공하림·손혜진. 2020. “문화 리터러시 관점에서 본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에

관한 고찰-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2(5): 113-142. 문화와융합학회.

김동국·이상률. 2015.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 방안 연구-동물명이 포함된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언어과학』 22(1): 49-70. 한국언어과학회.

김광해. 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김서우. 2020.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신체어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김영애. 2017.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색채 관용어 교육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김애심. 2017. “문화적 배경을 활용하는 한국어 관용어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김애진. 2009. “일본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용어 교육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김종욱. 2018. “신체어 ‘눈’, ‘손’을 활용한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방안”. 청주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김정남. 2016. “‘돈’ 관련 한국어 관용표현의 의미와 분포-한국어 어휘 교육의 관점을 지향하며”. 『한국어와 문화』 19: 33-53.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김정아·송현주. 2013. “친족어 관용표현의 개념화 양상”. 『언어과학연구』 64: 71-90. 언어과학회.

김정아. 2015. “동물명 관용표현에 나타난 개념적 은유 양상”. 『국제언어문학』 32: 149-174. 국제언어문학회.

김정아. 2019. “한국어교육을 위한 정형표현 항목 선정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김정아·티피왓 앙쿨. 2020. “동물명 관용표현의 의미 교육 연구: 태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문화와 융합』 42(11): 943-976. 문화융합학회.

김중섭 외. 2017.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국립국어원.

김한샘. 2011. 『한국어 속어 연구』. 한국문화사.

김현진. 2015. “한국어 교육용 관용 표현 연구: 주제 및 기능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김효신. 2020. “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72-78.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문금현. 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표현의 교육”. 『이중언어학』 15: 207-233. 이중언어학회.

문금현. 1999. 『국어의 관용표현 연구』. 태학사.

문금현. 2000. “구어적 관용표현의 특징”. 『언어』 25(1): 51-71. 한국언어학회.

민현식. 2003. “관용표현의 범위와 유형에 대한 재고”, 『한국어 의미학』 12: 17-50. 한국어 의미학회.

민현식. 2006.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의 방향과 방법”. 『한국언어문화학』 3(2): 137-180. 국제한국어문화학회.

박근희. 201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인지언어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박근희. 2018.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인지언어학 기반 관용표현 교육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박기원. 2019.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한국어 관용어 교육 방안: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호남대학교 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박동호·박지현. 2012.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 표현의 통사적 제약 방안”. 제16차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87-105.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박영숙. 2010. “관용어의 유래담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배유진. 2016.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신체 관련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전공 협동과정 석사학위

논문

서수백. 2016. “시트콤 자료를 활용한 한국어 관용표현 교육 연구-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을 대상으로”. 『인문논총』 41: 307-334.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서영서. 2020. “어휘 학습 전략 기반 한국어 관용어 교육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전공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손혜진·임형옥·공하림. 2018. “TV 드라마 대본을 통한 한국어 관용표현의 사용 맥락 고찰”. 『학습자중심교과교육』 18(17): 319-340.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송대현. 2020.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드라마 <도깨비> 속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4(5): 181-191.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송현주. 2015. 『국어 동기화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오은화. 2019. “중급 한국어 어휘 학습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연세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유덕자. 199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어 교육”.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룬. 2020. “한국어 감정 관련 관용표현의 교육 방안 연구: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동신대학교 대학원 한국어교원학과 석사학위논문.

이선희. 2014. “개념적 혼성 이론을 활용한 한국어 관용어 교육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이연희. 2012. “환유에 의한 한국어 관용어 교육 연구: ‘손’ 관련 관용어를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이영숙. 1992. “신체 관용어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의 활용”.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17(1): 95-117.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이지용·심지연. 2010. “인지의미론을 통한 한국어 관용어 교육의 효율성 연

구·영상도식 은유를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31: 209-247. 한국어의미학회.

이현주. 2013.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용표현 교육 방안 연구: 신문 읽기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전공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임지룡. 2008.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임지룡. 2012. “현대 국어 동물 속담의 인지언어학적 가치론”. 『국어교육연구』 50: 377-404. 국어교육학회.

임지룡. 2018. 『한국어 의미론』. 한국문화사.

정유남·최창원. 2020.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감정 관용표현의 교수 학습”. 『어문론집』 82: 417-450. 중앙어문학회.

정동준. 2017. “한국어시험(TOPIK)에서의 관용표현 문항 출제 필요성 연구-신체관용구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31-148. 한국어교육학회.

조유진. 2018. “한국어 교육에서의 관용표현 교수 방안: 감정표현을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한국어학과 석사학위논문.

조영화. 2011.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용표현 교육 방안: 신체 내부 관련 관용표현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최권진·정혜령. 2010. “매체 자료를 활용한 한국어 신체 관용어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7(2): 221-246.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최은규. 2004. “신문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법 연구”. 『한국어교육』 15(1): 209-23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한송화 외. 2015. 『한국어 교육 어휘 내용 개발(4단계)』. 국립국어원.

황미연. 2006. “한국어와 중국어의 관용표현 대조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황주승. 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어 교육 연구”. 강릉대학교 교육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Beréndi, M., S. Csábi. & Z. Kövecses. 2008. "Using conceptual metaphors and metonymies in vocabulary teaching". In Boers, F., & S. Lindstromberg(Eds.), *Cognitive linguistic approaches to teaching vocabulary and phraseology*. Berlin: Mouton de Gruyter: 65-100.
- Boers, F. & H. Stengers. 2008. "A quantitative comparison of the English and Spanish repertoires of figurative idioms". In F. Boers & S. Lindstromberg(Eds.), *Cognitive linguistic approaches to teaching vocabulary and phraseology*. 355-374. Berlin: Mouton de Gruyter.
- Gibbs, R. W. 1994. *The Poetics of Mind: Figurative Thought, Language and Understand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나익주 역. 2002. 『마음의 시학』. 한국문화사.)
- Gibbs & Nayak. 1989. "Psycholinguistic Studies on the Syntactic Behavior of Idioms". *Cognitive psychology* 21: 100-138.
- Hymes, D. H. 1972. "On communicative competence". In J. B. Pride and J. Holmes(Eds.), *Sociolinguistics*, 269-293. Baltimore, MD: Penguin Education. Penguin Books Ltd.
- Hyland, K. 2004. *Genre and Second Language writing*,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이수미 · 이소연 역. 2019. 『장르와 제2언어 글쓰기』. 하우.)
- Keil, F. 1979. *Semantic and conceptual development: An ontological perspectiv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King, K. 1999. *The Big Picture: Idioms as Metaphors*. Boston: Houghton Mifflin.
- Kövecses, Z. & P. Szabó. 1996. "Idioms: A view from cognitive semantics". *Applied Linguistics* 17(3): 326-355.
- Kövecses, Z. 2000. *Metaphor and Emotion: Language, Culture, and Body*

in Human Feel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김동환 · 최영호 옮김.

2009. 『은유와 감정. 언어, 문화, 몸의 통섭』. 동문선.)
- Lakoff, G & M. Johnson. 1980/2003.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koff, G. & M. Turner. 1989. *More than cool Reason: A field Guide to Poetic Metapho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이기우 · 양병호 역. 1996. 『시와 인지』. 한국문화사.)
- Lewis, M. 1993. *The Lexical Approach. Language Teaching Publications*. (김성환 역. 2002. 『어휘접근법과 영어교육』. 한국문화사.)
- Lewis, M. 1997. "Pedagogical implications of the lexical approach". In Coady, J. and T. Huckin(eds.). *Second language vocabulary acquisition*. 255-27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ow, G. 1988. "On teaching metaphor", *Applied Linguistics* 9: 125-147.
- Mendoza, I. F. 2008. "Cross-linguistic analysis,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cognitive semantics: The case of Spanish diminutives and reflexive constructions". In De Knop, S. and T. De Rycker(eds.), *Cognitive approaches to pedagogical grammar*. 121-155. Berlin: Mouton de Gruyter.
- Moon, R. 1998. *Fixed Expression and Idioms in English: A Corpus-based Approach*. Oxford: Clarendon Press.
- Nunberg, G., I. Sag & T. Wasow. 1994. "Idioms", *Language* 70(3): 491-538.
- Radden, G. & K. U. Panther(eds.). 2004. *Studies in Linguistic Motivation*. Berlin: Mouton de Gruyter.
- Semino, E. & Z. Demjén. 2017. *The Routledge Handbook of Metaphor and Language*. Routledge.(임지룡 · 김동환 역. 2020. 『은유 백과사전-은유 탐구의 최신 방법론』. 한국문화사.)

- Skoufaki, S. 2008. "Conceptual metaphoric meaning clues in two idiom presentation methods". In Boers, F, and S. Lindstromberg(eds.), *Cognitive linguistic approaches to teaching vocabulary and phraseology*. 101-132. Berlin: Mouton de Gruyter.
- Sornig, K. 1988. "Idioms in language teaching". In Hüllen, W, and R. Schulze(eds.). *Understanding the Lexicon: Meaning, Sense and World knowledge in Lexical Semantics*. 280-290. Tübingen: Max Niemeyer.